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려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굽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전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께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 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딱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 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림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

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뛰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꼭 변했겠지요.”
 “변하고 뛰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준비하게 남았즈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뿔뿔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똑똑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싶었다.

- 현진건, 「고향」 -

35. 윗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떠났다.
- ②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어 실망한다.
- ③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한다.
- ④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 ⑤ 일본을 떠나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36.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다.
- ③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한다.
- ④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대비하며 역사적 사건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⑤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서사 구조에 필연성을 강화한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현진건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고향」이 창작되었다. 민족 전체가 암울하게 살아가던 때, 「고향」은 우리 민중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고향을 둘러 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지닌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농민에 대한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군.
- ③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④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한국 민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⑤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고달픈 삶을 통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집약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겠군.

[44~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뭘요, 어딜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소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테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로 헌병인데 손 하나 꼽작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寺內)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딜 가기로 하여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물 것이 꼭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 수작이다.

“그런 별이가 어디 있어요?”

촌뜨기 선생은 그 큰 눈을 더 둥그렇게 뜨고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마주 쳐다보는 모양이다.

“왜요, 한번 해 보시려우?”

그는 이렇게 한마디 충동이며, 무슨 의미나 있는 듯이 그 악독하여 보이는 얼굴에 교활한 웃음을 띠고 한참 마주 보다가,

“시골서 죽도록 땅이나 파먹다가 거꾸러지는 것보다는 편하고 재미있습낸다. 게다가 돈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고.” 여전히 뱅글뱅글 웃으면서 이 순실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대로 있는 듯한 ㉡ 촌뜨기를 쾄다.

“그런 선반에서 떨어지는 떡 같은 장사가 있으면 하다 뿐이겠나요.”

촌뜨기는 차차 침이 괴어 오는 수작이다.

“그러나 밀천이 아주 안 드는 것은 아니지요. 우선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을 들여놓아야 하고, 양복이나 한 벌 장만 하여야 할 터이니까. 그러나 당신이야 형님이 헌병대에 계시다니까 신분은 염려 없을 테니 보증금은 없어도 좋겠지.”

제 판은 누구를 큰 직업이나 얻어 주는 듯 싶이, 더구나 보증금은 특별히 면제하여 주겠다는 듯이 오만한 태도로 어깨를 뒤틀며 호기만장이다. 일편 촌뜨기는 양복 신사가 돼야 하는 직업이라는 데에 속으로 해에 하는 ㉢ 기색이다. 그러나 정작 그 직업의 종류가 무엇인가는 좀처럼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상 곁에서 엿듣고 앉았는 나 역시 궁금하지만, 이러한 소리를 듣는 시골 낀자는 더한층 호기의 눈을 번쩍이며 앉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을 토설치 않는 것은 나와 그 외의 두세 사람이 들을까 꺼리어서 그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그 시골뜨기가 좀 더 몸이 달아 텅비며 자기의 부하가 되겠다는 다짐까지 받고서야 이야기하려는 수단 같기도 하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던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욱탕에서 시뻘정계 단 뭉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 그자도 물 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잡는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누워 떡 먹이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 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불러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苦力)* 말씀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낸다, 하하하.”

그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중략)

“그래 조선 농군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 테다가 샅전이 험하니까 안성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폭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 데야 제 아무런 ㉤ 놀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놀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똥진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나는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왔는지, 불안간에 욱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 밀러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훌치기 시작하였다.

스물두셋쯤 된 책상도련님인 나로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인생이 어떠하니, 인간성이 어떠하니, 사회가 어떠하니 하여야 다만 심심파적으로 하는 탁상의 공론에 불과한 것은 물론이다. 아버지나 조상의 덕택으로 글자나 얻어 배웠거나 소설 권이나 들춰 보았다고, 인생이니 자연이니 시니 소설이니 한대야 결국은 배가 불러서 투정질하는 수작이요, 실인생, 실사회의 이면의 이면, 진상의 진상과는 얼마만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가? 하고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것,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반년짜는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 하는 말을 들을 제, 그것이 과연 사실일까 하는 의심이 날만치 나의 귀가 번쩍하리만치 조선의 현실을 몰랐다. 나도 열 살 전까지는 부모의 고향인 충청도 촌속에서 자라났고, 그 후에도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촌락에 발을 들여놓아 보았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

* 생변: 교화되지 않은 야만인.

* 요보: 일제 시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을 얕잡아 부르던 말.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층의 중국인·인도인 노동자.

4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①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② 감각적 묘사를 통해 공간 배경을 세밀하게 그리고 있다.

- ③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여 이야기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④ 사건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평가를 독자에게 맡기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한 사실과 판단한 내용이 함께 기술되고 있다.

45. 위 글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려 한다. 판단의 내용과 근거가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	판단 내용	판단의 근거
①	시골자	어수룩함	자신을 충동하는 ‘그’의 말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②	시골자	어리석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그’의 부하라도 되겠다고 결심한다.
③	그	눈치 없음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큰 목소리로 떠든다.
④	그	용의주도함	질문을 통해 ‘시골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간다.
⑤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	소심함	확자하게 들어온 ‘육객’을 의식해 말을 멈춘다.

46.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선에 처음 간다’, ‘승객’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인물들은 여행 중인 것 같다. 이 작품에서 여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② 지식인인 ‘나’를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세계관이 ‘나’에 투영되었을 수 있겠군. 작가의 생애를 조사해 보아야겠어.
- ③ 작가는 풍자적인 묘사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통해 당시 조선 청년들의 윤리 의식의 부재를 고발하는 것 같다.
- ④ 농민들의 어려움을 서술한 부분들을 통해 식민지 조선의 궁핍한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 당시의 신문을 통해 실상을 확인해 보아야겠어.
- ⑤ 조선인 노동자를 싼값에 일본으로 팔아넘긴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 인간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비인간적 행태를 납득할 수 없었어.

47. [A]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 ③ 자기 정체성에 대해 책상물림이라고 자조(自嘲)하고 있다.
- ④ 민중들의 삶의 실상을 알지 못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이상과 가족들의 기대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48. ㉠~㉣에서 낫잡아 이르는 말이 아닌 것은? [1점]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년 6월 고2 B형 39~42번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전 줄거리] 조선 현실에 별 관심 없던 동경 유학생인 ‘나’는 조선에 있는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고 귀국하는 배에 오른다. 배에서 조선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멸시적인 태도에 반감을 느낀 ‘나’는 배 안의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다.

“그래 그런 훌륭한 직업이 무엇인데, 어디 있단 말요?”

이번에는 그 시골자의 동행인 듯한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욕탕에서 시뻘겋게 단 몸뚱어리를 무거운 듯이 끌어내며 물었다. 그 자도 물속에서 불쑥 일어서서 수건을 등 뒤로 넘겨서 가로잡고 문지르며 한번 **목욕탕** 속을 휘 돌아다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의 이야기에겐 무심히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먹을 갠 것을 살펴본 뒤에, 안심한 듯이 비로소 목소리를 낮추며 입을 벌린다.

“실상은 [㉠]지. 나두 이번에 가서 해 오면 세 번째나 되오마는, 내지의 각 회사와 연락해 가지고 요보*들을 붙들어 오는 것인데, 즉 조선 쿨리* 말쑤요. 농촌 노동자를 빼내 오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대개 경상남북도나, 그렇지 않으면 함경, 강원, 그 다음에는 평안도에서 모집을 해 오는 것인데, 그 중에도 경상남도가 제일 쉽습네다, 하하하.”

그 자는 여기 와서 말을 끊고 교활한 웃음을 웃어 버렸다.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번 그 자의 상관매기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옳지! 그래서 이 자의 형이 헌병 군조라는 것을 듣고 이용할 작정으로 반색을 한 게로군!’

나는 이런 생각도 하여 보며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앉았었다.

궤차*는 병병히 듣고 앉았는 그 두 사람의 얼굴을 이리저리 바라보고 빙긋 웃으며 또다시 말을 잇는다.

“왜 남선 지방에 응모자가 많고 북으로 갈수록 적은고 하니, 이 남쪽은 내지인*이 제일 많이 들어가서 모든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북으로 쫓겨서 만주로 기어들어가거나 남으로 현해탄을 건너서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누

구나 그들보다는 양지가 좋으니까, 요보들 생각에도 일년 열두 달 죽도록 농사를 지어야 주린 배를 채우기는 고사하고 보릿고개에는 시래기죽으로 부증이 나서 뒤통지경인 바에야, **변화한 동경, 대판**에 가서 홍청망청 살아 보겠다는 요량 이거든. 그러니 촌의 젊은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계집애들까지 나두 나두 하고 나서거든. 뭐 모집이야 쉽지!”

“흥…… 그럴 거야!”

“아직 북선 지방은 우리 내지인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히 사니까 응모자가 적지만, 그것도 미구불원*에 쪽박을 차고 나설 거라, 허허허.”

이 자는 자기 설명에 만족한 듯이 대단히 득의만면이다.

“그래 그렇게 모집을 해 가면 얼마나 생기나요?”

촌뜨기는 구수하다는 듯이 침을 흘리며 듣는다.

“얼마가 뭐요. 여비가 있지, 일당이 또 있지, 게다가 한 사람 모집하는 데에 일 원서부터 이 원이니까—그건 회사와 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가령 방적회사의 여직공 같은 것은 임금도 싼데다가 모집원의 수수료도 헐하고, 광부 같은 것은 지금 시세로도 일 원 오십 전으로 이 원 오십 전까지 라우. 가령 천 명만 말아 가지고 와서 보구려. 이삼 삭 동안 여비나 일당에서 남는 것은 그까짓 건 다 그만두고라도 일 천오륙백 원, 근 이천 원은 간데없는 것일 게니, 그런 별이가 이판에 어디 있소? 하하하. 나도 맨 처음에—그건 제주도에서 모집하여 갔지만—그때에 오백 명 모아다 주고 실살고*로 남긴 것이 천 원이었고, 둘째 번에는 올 가을 팔백 명이나 북해도 족미(足尾) 탄광에 보내고 이천 원 돈이 들어왔다우.”

노동자 모집원이라는 자는 입의 침이 없이 천 원, 이천 원을 신이 나서 너며 목욕탕 속에서 나왔다.

“예예, 예예, 그럴 거예요!”

하며, 일평생에 들어 보지도 못하던 천(千) 자가 붙은 돈 액수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고 앉았던 시골자는, 때를 다 믿었는지 그 장대한 구릿빛 나는 유착한 몸집을 벌떡 일으키어 다시 욕탕 속에 출렁 집어넣으면서 만족한 듯이 또 다시 말을 붙이었다.

“그래 조선 농꾼들이 가서 그런 공사일을 잘들 하나요?”

“잘 하구 못 하는 것은 내가 아랑곳 있겠소마는, 하여간 요보는 말을 잘 듣고 쿨리만은 못해도 힘드는 일을 잘 하는데다가 샅전이 헐하니까 안정맞춤이지. 그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라고 폭 삶아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갈 노자며 처자까지 데리고 가게 하고, 게다가 빚까지 갚아 주는데야 제아무런 놀이기로 아니 따라 나설 놈이 있겠소. 한번 따라 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헐하긴 고사하고 굶어 뒤흔다기루 하는 수 있나, 하하하.”

벌써 부하가 되었다는 듯이 득의만면하여 모집 방법의 비책까지 도도히 설명을 하여 주고 앉았다.

좀 더 들으려고 일부러 머뭇머뭇하며 앉았으려니까, 승객이 다 올라탔는지, 별안간에 **욕객**의 한 떼가 또 왁자하고 들이밀려오기에 나는 그만 듣고 몸을 흠치기 시작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요보: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멸시하여 이르던 말.

* 쿨리: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하급 노동자.

- * 켄자: 삼인칭 '그'에 해당하는 말.
- * 내지인: 일본인.
- * 미구불원: 앞으로 얼마 오래지 아니하고 가까움.
- * 실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 이익.
- * 전차: 어떤 조건을 걸고 앞당겨 쓰는 빛.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면서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 ② 주변을 관찰하며 내면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적 배경을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잦은 장면 전환으로 상황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독백적 발화를 통해 인물의 객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0.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목욕탕'은 '나'가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
- ② '공장'과 '광산'은 조선 노동자들이 착취 당하던 공간이다.
- ③ '변화한 동경, 대판'은 '나'가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고통 받는 공간이다.
- ④ '촌뜨기'는 연이은 질문으로 현실 상황을 작품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⑤ 새로운 '유객'의 등장은 '나'가 옆 사람의 말을 더 이상 엿들 수 없도록 만든다.

41. <보기>를 참고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드러낼 수 있는 문학 작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 탄생한 「만세전」은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보여주며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를 지닌다.

- ① 조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일본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있군.
- ② 생계조차 어려운 조선인의 비극적인 실상을 알리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③ 헌병, 노동자 모집원 등을 소재로 활용한 것은 총독부의 검열을 피해보려는 노력으로군.
- ④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에 대한 '나'의 분노를 통해 민족적 자의식의 형성 과정을 엿볼 수 있군.
- ⑤ 일본인에게 쫓겨 만주로 가는 등 민족의 억압적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우리 민족의 각성을 유도했겠군.

42. ㉠과 ㉡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 넘어 산 ② 누워서 떡 먹기
- ③ 티끌 모아 태산 ④ 금강산도 식후경
- ⑤ 언 발에 오줌 누기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목판에 엮드려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스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게든 저편의 호감을 사고 저편을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꾀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恐怖), 경계(警戒), 미봉(彌縫), 가식(假飾), 굴복(屈服), 도회(鄙晦)*, 비굴(卑屈)……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에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전제 밑에서 더께가 앉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마는,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들어 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 주면 나중엔 어찌 되든지 살아갈 수 있겠조.”

청년은 무엇에 쫓겨 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휘휘 둘러다 보고 나서 목소리를 한층 낮추어서 다시 말을 잇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물이 있다 하면 싫든 좋든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조 하지만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유풀이 있지 않습니까?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형님한테 한참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요 어떻게 시행하라는 것인지는 나로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그까짓 것은 아무렇게나 상관없는 일이지마는, 아마 요사이 경향에서 모여 앉으면 께들 문젯거리, 화젯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나는 한번 께께 웃어 주고 싶었으나 그리할 수는 없었다.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나우.”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는가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저편 뒤로 께께한 구석에 금테를 한 동 두른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김천서 나하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둘러다 보았다.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중에서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서는 염려되는 것이었다.

“정말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지만 행세하는 사람야 좀 다르겠조?”

“그야 좀 다르겠지만, 어떻게든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 남은…… 아마 목구멍 빠라든가를 갖다가 묻고 목패든지 비석을 세운다우. 그러지 않아도 살아 있는 사람도 터전이 좁아서 땅 조각이 금 조각 같은데, 죽는 사람 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 이 세상에는 무덤만 남고 말지 않겠소, 허허허.”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은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 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그리구서니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구 금세루 살라야 버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화장을 지낸다기루 상관이 뭐겠소. 예전에 애급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상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 관에 넣은 시체를 다시 석관까지에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 두었지만, 지금 와서는 미이라밖에는 되지 않고 만 것을 보면 죽은 송장에게 능라주의(綾羅紬衣)*를 입히고 백 평, 천 평 되는 땅에다가 아무리 굳게 파묻기로 그것이 무엇이랴 말시오. 동상을 세우면 무얼 하고 송덕비를 세우면 무었에 쓴다는 말시오.”

내 앞에 앉았는 장꾼은 무슨 소리인지 귀에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네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떨거니 앉았다.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生事葬祭)에 예(禮)로써 받들어야 할 거야 더 말할 것 없지마는,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에 공경하는 마음이나 정성을 말하는 것 아니겠소? 그러니 공동묘지 법이란 난 아직 내용도 모르지마는, 그것은 별문제로 치고라도, 그 근본정신은 생각지 않고 부모나 선조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外華)나 자랑하고 음덕(蔭德)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란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소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살게 되었소? 염통 밑에 쉬스는 줄은 모른다구, 깍살릴* 것 다 깍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곳부터 염려를 하고 앉았을 때인지? 너무도 열빠진 늑동이 수작이 아니오? 허허허.”

나는 형님에게 하고 싶던 말을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는 이 자를 붙들고 한참 꾸념을 하였다.

- 염상섭, 『만세전』 -

* 도회: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

* 능라주의: 비단옷과 명주옷.

* 깍살리다: 재물이나 기회 따위를 흐지부지 다 없애다.

4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적 배경을 통해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② 냉소적 어조를 통해 세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42.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인물들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공동묘지 법’ 시행에 따른 ‘화장’의 제도화를 우려하고 있다.
- ② ‘나’는 ‘공동묘지 법’의 시행 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③ ‘나’는 ‘공동묘지 법’과 관련한 자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 ④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의 목적이 묘지를 없애 집터를 넓히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
- ⑤ ‘장돌뱅이’는 ‘공동묘지 법’이 ‘애급’의 관습을 따른 것이라는 사실에 흥미로워 하고 있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1920년대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염상섭은 개인의 발견과 현실 인식이라는 소설의 근대적인 특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인칭 시점을 적용한 소설을 통해 개인의 내면을 드러내는 방식을 모색하여,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문학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였다. 나아가 그는 생활 현실에 근거한 문학으로 관심을 확장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문에는 생활의 기록이요, 흔적이요, 주장이다. 생활에 대한 염상섭의 새로운 인식은 생활의 표현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하려는 근대 문학의 정신에 접근하고 있다.

- ① 시속의 ‘저세술’에 대해 성찰하여 평가한 점을 통해, 생활의 문제에 대한 작가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생활 철학’을 터득하려는 개개인의 의지를 옹호한 점을 통해, 개인의 발견에 관한 작가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겠군.
- ③ ‘지금의 우리 생활’을 ‘봉건적’ 의식과 문화에 견주어 문제 삼은 점을 통해, 삶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려는 작가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겠군.
- ④ 일상적 관심사로 오르내리는 ‘화셋거리’를 이야기한 점을 통해, 생활의 흔적을 기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살필 수 있겠군.
- 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나’가 서술하도록 설정한 점을 통해, 개성을 표현하는 문학의 방식을 모색하는 작가의 관심을 찾아볼 수 있겠군.

◆ 13년 9월 고2 B형 34~37번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1운동이 일어나기 전해 겨울, 동경 W대학 문과에 다니는 '나'는 해산 후더침을 앓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는다. 학기말 시험 도중이었지만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이 걱정되어 귀국하려 한다.

“그럼 면도나 할까!”

나는 이같이 대답을 하고 나서 깎지 않아도 좋을 머리까지 깎으려는 지금의 자기가 별안간 야비하게 생각되는 것을 깨닫고, 앞에 붙은 চে저 속을 멀거니 들여다보다가 혼자 껍 ㉠ 웃어버렸다..... 가만히 눈을 감고 자빠져서도 이처럼 여유 있고 늘어진 자기의 심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싫든 좋은 하여간 근 육칠 년간이나, 소위 부부란 이름을 띠고 지내왔는데..... 당장 숨을 묻다는 지급전보를 받고 나서도, 아무 생각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무사태평인 것은 마음이 악독해 그러하단말인가. 속담의 상말로, 기가 하두 막혀서 막힌듯만동해서 그런가?..... 아니, 그러면 누구에게 반해서나 그런다 할까? 그럼 누구에게?.....’

그러나 ‘그러면 누구에게?.....’라고 물을 제, 나는 감히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다만 뱃속 저 뒤에서는 정자(靜子)! 정자! 하는 것 같았으나 죽을힘을 다 들어서 ‘정자’라고 대답하여 본 뒤에는, 또다시 질색을 하며 머리를 내둘렀다. 실상 말하면 정자가 아니라는 것도 정자라고 대답하려니만큼 본심에서 나온 대답이었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머리를 깎으려고 들어온 동기가 애초에 어디 있었느냐는 것은 분명히 의식도 하고 부인하지도 않았다.

‘과연 지금 나는 정자를 내 아내에게 대하는 것처럼 냉연히 내버려둘 수는 없으나,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만큼 또 다른 의미로 정자를 사랑할 수는 없다. 결국 나는 한 여자도 사랑하지 못할 위인이다.’

이같은 생각을 할 제 나는 급작스레 고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생활의 목표가 스러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저러나 지금 이다지 시급히 떠나려는 것은 무슨 때문인가. 내가 가기로 죽을 사람이 살아날 리도 없고, 기위 죽었다 할 지경이면 내가 아니 간다고 감장*할 사람이야 없을까? 육칠 년이나 같이 살아온 정으로? 참 정말 정이 들었다 할까? 입에 붙은 말이다. 그러면 의리로나 인사치레로? 그렇지 않으면 일가에게 대한 체면에 그럴 수가 없다거나, 남편 된 책임상 피할 수 없어서 나가 봐야 한다는 말인가. 흥! 그런 생각은 염두에도 없거니와 그런 마음에도 없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어디 있는가?’

여기까지 와서는 더 생각을 이어 할 용기가 없었다. 만일에 어디까지든지 캐물을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명답을 얻었을지 모르나 그것은 잇몸이 근질근질하는 것 같아서 다시 건드리지도 않고 자기 마음을 살짝 덮어두었다.

┌ 면도를 하고 세수를 하고 치장을 차린 뒤에 어디로 가리
[A] 라는 결심도 채 하지 못하고 이발소에서 뛰어나왔다.

└ ‘바로 하숙으로 돌아갈까? 정자에게로 가보나?’

[종락 줄거리] ‘나’는 일본 여자인 정자를 만나고 일본인 형사의 검문을 받으며 부산으로 가는 연락선을 탄다. 연락선 목욕탕에서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조선 노동자의 매매 현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부산에 도착한 후 기차를 타고 김천을 거쳐 조선 민중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며 서울에

도착한다. 며칠 후 결국 아내가 죽고 ‘나’는 정자의 편지에 답장을 쓴다.

.....소학교 선생님이 ‘사벨’(환도)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외다. 고민하고 오뇌하는 사람을 존경하시고 편을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내성(內省)하는 고민이요 오뇌가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 부대끼면서도 숨이 죽어 엎디어 있는 거세된 존재에게도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넨다. 혹은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救)하는 길은 못됩니다.

이제 구주(歐州)의 천지는 그 참혹한 살육의 피비린내가 걷히고 휴전조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신생을 생각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학교 교원의 허리에서 그 장난감칼을 빼어놓을 날은 언제일지? 숨이 막힙니다.....

우리 문학의 도(徒)는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그 본령인가 합니다. 우리의 교육,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맺어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그리고 당신의 동포의, 진실된 생활을 찾아나가는 자각과 발분을 위하여 싸우는 신념 없이는 우리의 우정도 헛소리입니다.....”

나는 형님이 떠날 제 초상에 쓰고 남은 것이라고, 동경 갈 노자와 함께 책값이며 용돈으로 내놓고 간 삼백 원 속에서 백원을 이 편지와 함께 부쳐주었다. 혹시 다른 의미나 있는 줄로 오해할 것이 성이 가시기도 하나, 동경에서 떠날 제 선사받은 것도 있으려니와, 정자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라고 한마디 쓰고, 다소 부조가 될까 하여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길에 들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엿기 때문에, 아주 이것으로 마감을 하여 버리고, 나도 이 기회에 가쁜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한 열흘 더 있다가 졸업 논문도 있고 아무래도 학교 일이 걱정이 되어서 떠나고 말았다. 정거장에는 큰집 형님, 병화 내외, 올라들이 나왔다. 올라는 입도 벌리지 않고 오도카니 섰고, 병화 내외도 플랫폼의 보폭에 매달린 시계만 치어다보며 선후함을 하고 섰었다. 그러나 병화의 얼굴에는 그렇게 보아서 그런지 모든 오해를 풀고, 인제는 안심하였다는 듯이 화평한 기색이 도는 것 같았다.

차가 떠나려 할 제 큰집 형님은 승강대에 섰는 나에게로 가까이 다가서며,

“내년 봄에 나오면 어떻게 속현(續絃)*할 도리를 차려야 하지 않겠나?”

하고 난데없는 소리를 하기에, 나는,

“겨우 무덤 속에서 빠져나가는데요? 따뜻한 봄이나 만나서 별장이나 하나 장만하고 거드럭거릴 때가 되거든요!.....”

하며 ㉡ 웃어버렸다.

— 염상섭, 「만세전(萬歲前)」—

* 감장: 장례 치르는 일을 돌봄.

* 속현: 거문고와 비파의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는 뜻으로, 아내를 여린 뒤에 다시 새 아내를 맞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차분한 어조로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⑤ 공간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갈등이 완화되면서, ㉡은 갈등이 고조되면서 발생한다.
- ② ㉠에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에는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③ ㉠과 달리 ㉡은 다른 인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나타난다.
- ④ ㉠과 달리 ㉠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다.
- ⑤ ㉠과 ㉡은 모두 다음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일본 자기중심적 성향	→ 연락선 · 기차 외적 경험	→ 서울 민족의 현실 자각
----------------	---------------------	-------------------

선생님: 이 표는 ‘반성적 시각’을 지닌 인물의 내면 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의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학생: 선생님, 인물이 갖고 있다고 하신 ‘반성적 시각’에 대해 더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 ‘반성적 시각’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 또는 세계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소극적 인물이지만 ‘반성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로에서 겪은 경험을 통해 민족의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 ① ‘이발소’에서의 ‘나’의 모습은 자신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목욕탕’과 ‘정거장’에서의 외적 경험은 인물에게 비로소 반성적 시각이 생겼음을 보여준다.
- ③ ‘소학교 선생님의 사벨’을 통해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정자’의 편지에 대한 ‘답장’은 타인과 세계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⑤ ‘정자’와의 이별은 소극적 인물의 자기중심적 성향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37. [A]의 인물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스로 노력은 하지 않고 수주대토(守株待兔)하고 있군.
- ②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노심초사(勞心焦思)하고 있군.
- ③ 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좌고우면(左顧右盼)하고 있군.
- ④ 이리저리 좌충우돌(左衝右突)하면서 함부로 행동하고 있군.
- ⑤ 결국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자승자박(自繩自縛)하게 되었군.

◆ 05 수능 15~19번

[15 19]

(가)

가



[A] “ ”

가

가

가

가

가

**
가

* : ‘ ’
** : ‘ ’

() 「
」

「 가
」

「 가 가 가
」 가

「 가 가가
」 가

— 가
* : ‘ ’

15. (가) () _____ ?

(가) () 가

() (가)

(가) ()

(가) ()

(가) ()

16. < > ? [1]

(가) ‘ ’ 가
‘ ’

17. (가)

< >

_____ ?

• : 1938
 • 가 :
 가 (客死)
 가
 가 (流移民)

1938

, '가', '가'

'가'가 '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18. [A]

< >

,

_____ ?

(가 .)
 :
 : () 가

 (.)
 1: , ?
 2: .

 3: .
 (가 가
 .)
 : ()
 ,
 : . 가 가
 . () ,

19. ()

_____ ?

'가' , '가'
 '가' , '가' 가
 '가' 가
 '가' ,
 '가' , '가' ,

◆ 06년 4월 고3 15~19번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을
레짝 밝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 국숫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숫집 아이

단오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단 하루
아버지의 제삿날만 일을 쉬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이용악, '다리 위에서' -

* 장명등 : 대문 밖이나 처다 끝에 달아 두고 밤이면 켜는 유리등.

(나) 우리 집안 아낙네와 가시내들과

가운데오촌네 집 뒷방에 모였다.
가마니를 아래
큰집 고모 오복녀 데려다가
모시개떡 해서 나눠 먹었다.

㉡ 간도가 어디인가

간도로 가는 오복녀.
모시떡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울음바다 이루어서
집안 가시내들도 울음바다 이루어서
동네가 떠나가는데
누가 나서서 말리지도 못했다.
간도가 어디인가
그렇게 울고 나서
다음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큰집 막내오촌 따라 간도로 가버린 뒤
거기는 오줌 싸면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어서
활이 되어 걸리는 추운 곳이라지.
거기 가서 어찌 사나
그 어여쁜 오복녀 고모.
웃으면 오목하니 불우물 쌍으로 열리는 고모
자주고름 겹은 가슴 오복녀 고모.
이 ㉢ 땅에서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이라
가장 많은 눈물 가지고 간 고모.

- 고은, '큰집 고모' -

(다) 아버지 비 속으로 가신다. 시간의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날의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지는 텅 빈 ㉣ 골목길로
아버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의 비 그쳐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화안한 그 꽃밭 뭉개며 내 마음의 어둔
그림자로 우뚝 서 계시는 아버지
애야,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네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길 없이 쏟아지는 잠과
잠의 깊은 늪골을 비집고
비가 온다 어느새
한 세상 비 속으로 저무는데
밤과 ㉤ 밝으로 이어지는 중년을 흔들여 깨우며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저는 녹스는 제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칼날의 시간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여
아직도 식지 않는 증오 서리처럼 흐리는 창 너머로
아버지 비 속으로 걸어가신다.

- 김명인, '비 속의 아버지' -

15. (가)~(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는 지난날을 통해 현재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에서는 어린 시절의 일을 고백하듯 말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에서는 인물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가)~(다)에서는 절망적 현실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다)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과 그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16.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어.
- ② '풀벌레 우는 가을철'은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드러내 주는 것 같아.
- ③ '바람이 거센 밤이면'에서 화자의 가족이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어.
- ④ 화자의 집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국숫집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
- ⑤ '어른처럼 곡을 했다'에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화자의 모습을 알 수 있어.

17.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적 대상을 구체화시켜 상황에 사실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시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인 인물의 이름을 통해 힘겨운 삶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여 서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18.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과 아버지가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② 등장 인물은 중년의 사내로 설정하여 아버지를 추억하는 모습으로 그린다.
- ③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설정해서 아버지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 ④ 이야기의 시작과 끝의 상황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서사 구조의 완결성'을 갖춘다.
- ⑤ 시점은 '나'의 목소리를 통해 내면이 잘 드러나도록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설정한다.

19. ㉠ ~ ㉥에서 [어머니]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보 기〉

내 유년 시절 바람이 문풍지를 더듬던 동지의 밤이면 어머니는 내 머리를 당신 무릎에 뉘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무를 깎아 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 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애야, 그것은 네 속에서 울리는 소리란다. 네가 크면 너는 이 거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 지나 앞마당에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잇장 같은 내 배를 자꾸만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 풀풀 수습 장 입김이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 기형도, '바람의 집, 거울 판화(版畵) 1' —

- ① ㉠ ② ㉡ ③ ㉢ ④ ㉣ ⑤ ㉥

◆ 09 경찰대 1차 40~43번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표면에 나서서 행동하지 못하고 배후에서 ㉠동정자나 후원자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곁의 사람이 엿보지 못할 고민이 있다. 그네들의 속으로 벗고 뛰어들어서 동고동락(同苦同樂)을 하지 못하는 곳에 ㉡창백한 인텔리로서의 탄식이 있다.

나는 ㉢농촌을 제재(題材)로 한 작품을 두어 편이나 썼다. 그러나 나 자신은 농민도 아니요, 농촌 운동자도 아니다. 이른바, 작가는 자연과 인물을 보고 느낀 대로 스케치판에 옮기는 화가와 같이, 아무것도 구애되지 않는 자유로운 처지에 몸을 두어 오직 관조(觀照)의 세계에만 살아야 하는 종류의 인간인지도 모른다. 또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현실 세계에 입각해서 전적(全的) 존재의 의의를 방불케 하는 재주에 예술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물위에 기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예술가의 무리는, 현실 사회에 있어서 한 군데도 쓸모가 없는 ㉣부유층(浮遊層)에 속한다. 너무나 고답적(高答的)이요, 비생산적(非生産的)이어서 몹시 거추장스러운 존재다. 시각(視角)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호의로 바라본다면 세속의 누(累)를 떨쳐 버리고 오색 구름을 타고서 고왕독맥(孤往獨慕)하려는 기개가 부러울 것도 같으나 기실은 단 하루도 입에 거미줄을 치고는 살지 못하는 나약(懦弱)한 인간이다. “귀족들이 좀 더 켜 체하고 뽐내지 못하는 것은 저희들도 측간(廁間)에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뽐족한 소리를 한 아쿠타가와(芥川)의 말이 생각나거니와 예술가라고 결코 특수 부락(特殊部落)의 백성도 아니요, 태평성대(太平聖代)의 일민(逸民)도 아닌 것이다.

적지않이 탈선이 되었지만 백 가지 천 가지 골이 아픈 이론보다도 한 가지나마 실행하는 사람을 숭앙하고 싶다. 살살 입술발림만 하고 턱 밑의 먼지만 툭툭 털고 앉은 ㉤백 명의 이론가, 천 명의 예술가보다도 우리에게서 단 한 사람의 ㉥농촌 청년이 소중하다. 시래기죽을 먹고 겨우내 ‘가가거겨’를 가르치는 것을 천직이나 의무로 여기는 ㉦순진한 계몽운동자는 히틀러, 무솔리니 못지않은 ㉧조선의 영웅이다.

나는 영웅을 숭배하기는커녕 그 얼굴에 침을 뱉고자 하는 자이다. 그러나 이 농촌의 소영웅(小英雄)들 앞에서는 머리를 들지 못한다. 그네들을 쳐다볼 면목이 없기 때문이다.

- 심훈, <조선의 영웅>

40. 위 글에서 예찬하고 있는 대상과 <보기>에서 밑줄 친 대상의 공통점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보기>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 삶이란 / 나 아닌 그 누구에게 /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 방구들 선득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 조선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 연탄차가 부릉부릉 /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 생각하면 / 삶이란 /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안도현, <연탄 한 장>

- ① 작은 일상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음.
- ②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고통을 인내함.
- ③ 냉철한 이성으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함 .
- ④ 모진 시련 속에서도 밝은 미래를 희망함.
- ⑤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함.

41. <보기>는 소설 공모 광고의 일부이다. ㉠이 이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라고 할 때, 작품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우리 신문사는 농촌 계몽 운동인 ‘브 나로드’ 운동에 호응하는 농민 소설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란다.

- a. 조선의 농촌을 배경으로 하여야 한다.
- b. 주요 인물은 조선 청년으로서 진취적인 성격으로 설정한다.
- c. 과격한 농민 운동을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 ① 농촌 청년과 처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려 조선 농촌의 활력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일 것이다.
- ② 조선 농민을 위해, 도회지의 삶보다는 농촌의 전원생활이 더 인간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의 작품일 것이다.
- ③ 조선의 농민을 구하는 길을 찾지 못해 탄식하며 좌절하는 조선 청년의 내면 심리를 여실하게 그린 작품일 것이다.
- ④ 조선 농민의 문제는 소작 제도에 있으므로 이를 개혁하기 위한 농촌 청년들의 집단적인 투쟁 운동을 담은 작품일 것이다.
- ⑤ 도회지 청년들이 큰 뜻을 품고 조선의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에게 문자 보급을 통한 계몽 운동을 펼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그려진 작품일 것이다.

42. ㉠의 삶과 <보기>에서 추구하고 있는 삶의 모습 속에는 공통된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이 가치를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은?

<보기>

이에 우리 사대부들이 먼저 감연(敢然)히 의병을 일으키고 그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는 공경(公卿)에서 아래로는 서민에까지 어느 누가 애절한 뜻이 없겠는가. 지금이야말로 국가가 위급한 때이니, 각기 짚자리에 잠자고 창을 베개 삼고, 또한 끓는 물, 불 속이라도 뛰어들어 세상을 안정하게 하여, 세월이 다시 밝아지면 어찌 한 나라에 대한 공로로만 그치겠는가. 실로 후세에까지 칭송을 들을 것이다.

이제 이같이 글월을 보내어 회유한 뒤에 혹 영(令)을 어기는 자 있으면, 저 역적들과 한패로 보아 단연코 군사를 보내 토벌하리니 각기 가슴 속에 새겨 두어 *서제(噬臍)의 뉘우침이 없도록 부디 다 함께 성심껏 큰 뜻을 펴기를 바랄 따름이다.

*서제(噬臍): 일이 지난 뒤에 후회하는 일
-유인석, <창의문>

- ① 그림의 떡

② 눈뜬 장님

③ 말은 앵무새

④ 개 발에 편자

⑤ 꿀 먹은 벙어리

43. ㉡-㉣ 중, ㉡에 부합하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